

# 코스피 '활발', 코스닥 '주춤'... 자사주 소각 양극화 심화

올해 코스피 자사주 소각공시 66건  
소각금액 12조, 전년비 3배 급증  
코스닥, 소각액 2084억→2031억

“주주환원, 여유자금 확보에 진행  
수익성·성장성 높이는게 효과적”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최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매입 후 소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R&D), 공장건설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드는 중소 벤처기업 특성상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생산적 투자활동에 나서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밸류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 ◆자사주 소각 '양극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달 3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 공시가 66건으로 전년(28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소각 금액 역시 4조1801억원에서 12조14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반해 코스닥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 공시는 33건으로 전년 동기(22건)보다 늘었으나, 금액은 2031억원으로 오히려 전년(2084억원)보다 감소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자본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밸류업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코스닥 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스퀘어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다. 반면, 코스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보유현금이 적고 최근 수익성까지 낮아지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 1153곳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7조8777억원, 4조3075억원으로 각각 6%, 29% 넘게 감소했다.

코스닥 기업의 더딘 밸류업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늘었다.

영국의 기업 지배구조 리서치 업체 딜리전트마켓인텔리전스가 최근 발간한 '2025 주주 행동주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주주 행동주의 대상 기업 수가 66개로 미국, 일본에 이어 셋째로 많았다.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셋째였다. 주주 행동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 이후, 소액 주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 ◆소각 강요보다는 '생산적 투자' 활성화해야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주 환원은 기업이 여유 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하지만 많은 코스닥 기업은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주주 환원보다는 경영 안정성을 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야 주주 환원이 가능하며, 현재 코스닥 기업이 주주 환원에 미온적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등에 과도한 자금을 투입할 경우, 연구개발이나 신규 투자에 사용할 여력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 환원과 성장 투자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주주 환원 확대나 투자 계획 공시는 기업 가치 평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산적 투자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안 된다”며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자본 지출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 가치 제고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미국發 반도체 한파... 삼성전자 '5만전자'로

트럼프세션에 美 기술주 '버블' 경고  
삼성전자, 3.99% 하락 5만7800원  
“삼성, 장기적으로 실적개선 기대”

반도체 가격 회복 전망으로 살아나던 'K-반도체' 앞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세션(트럼프와 친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합친 말' 공포에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데다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버블' 경고등까지 켜졌다. 여기에 공매도 재개까지 하락을 부채질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99% 하락한 5만78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 4.32% 내린 19만700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반도체주 약세는 지난주 말(28일) 미국 소비 심리 약화와 지출 둔화, 인플레이션 지속 등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뉴욕 증시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일제히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구성 종목 30개가 모두 주저앉

으며 2.95% 급락했다.

공매도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는 7400만주, 4조5441억원 규모에 달한다.

개미들은 고민이다. 미국 기술주들이 추락하면서 반도체주 주가가 내리막길로 접어들 수 있어서다.

1분기 두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전망은 엇갈린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2조8860억원에서 올해 1분기 6조5022억원으로 125.3%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6조6060억원에서 5조1918억원으로 21.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가 전망은 장밋빛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D램, 낸드 공급이 수요 회복 속도를 크게 밀들며 긴급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삼성

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 측은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쳤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시장은 이미 침체 이후의 반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도 호평이 많다.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장 평균을 웃도는 99%의 고대역폭메모리(HBM)비트 그로스(비트 단위 출하량 증가율)가 예상된다면서, 회사의 D램 시장 점유율이 연내 꾸준한 상승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7% 올린 32만원으로 제시했다. 투자 의견 '매수'도 유지했다. 이 증권사 채민숙 연구원은 “올해 HBM 비트 그로스는 컨벤셔널 D램 성장 대비 5배 이상 높고, ASP(평균판매가격) 역시 4배 이상 높다”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상반기 내 HBM3e 12Hi 제품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HBM 시장 지배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현대오일터미널 신동화 대표이사, 교보생명 박정범 본부장, 한국산업은행 김태희 본부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 우리자산운용 최승재 대표이사. /우리자산운용

## 1300억 '친환경 선박연료 1호' 펀드 설정

우리자산운용, 해수부 등과 협력

우리자산운용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등과 협력해 '우리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1호(이하 친환경 선박연료 1호)' 펀드를 설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펀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금융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선박연료 1호'는 총 1300억원 규모로, 울산현대 액체화물 터미널

증설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LNG 및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친환경 해운 정책에 맞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펀드가 해운·항만·물류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친환경 해운정책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 'AI 데이터센터' 투자 큰 손 발길 물린다

작년 글로벌 데이터센터 거래 145조  
아시아 수요 연평균 24% 성장 전망  
금리 인하기, 인프라 시장에 '긍정적'

“향후 투자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인프라 생태계에 있다. 가장 짝꿍한 투자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에서 나올 것이다”(조지프 지들 블랙스톤 최고 투자 전략가)

'전력 잡아먹는 하마'로 통하는 데이터센터가 인공지능(AI)시장 확산으로 큰 손들의 투자처로 떠올랐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거래액은 100억달러(약 145조원)를 웃돌았다. 최대 규모다. 인프라시장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달이 증가하면서 저조했던 아시아 관련 투자도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관련 달은 약 80개로 직전 해인 2023년 대비 3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아시아의 인프라펀드 평균 사이즈는 약 15억달러(약 2조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PEF)들은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며 확장하는 추세”라며 “특히 아시아의 데이터 센터에 달이 집중되면서 성장기를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저비용 AI인 '딥시크(DeeperSeek)'의 등장으로 데이터센터의 필요 용량이 2030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전 세계 데이터 생성량도 2년 전 대비 1.5배 증가했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인프라 투자가 주목되는 이유다. 디지털리얼티는 아시아 데이터센터 수요의 2024~2028년 연평균 성장률(CAGR)을 24%로 전망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 자금유입 1위

디딤펀드 출시 6개월, 1200억 모여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가 디딤펀드 출시 이후 6개월 동안 자금유입 1위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동시에 출시한 디딤펀드는 6개월 만에 1200억원이 자금이 모이며 순항 중이다.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는 출시 이후 443억원의 순증을 보이며, 전체 디딤펀드 중 37%비중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전체 디딤펀드 중 유일하게 2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는 연초 이후 2.20% 기록하며 업계 디딤펀드 평균 수익률 대비 91bp 초과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설정 이후 수익률 역시 7.21%로 디딤펀드 평균 2.67%p를 상회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